

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(9.2일)

□ 지금부터 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]

□ 지난 주,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안보·경제·첨단 기술이 결합된 '미래형 동맹'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그 중추에는 한미 양국 간 경제 분야의 진전된 협력이 있었습니다.

○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교두보 마련을 위해 조선·원자력, 항공, LNG, 핵심 광물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.

- 특히, 한미 간 조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통령님께서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을 당부하셨습니다.

○ 지난 7.30일 관세 협상 타결 시 논의한 3,500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도 큰 틀의 합의가 재확인되었고, 세부 실행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○ 또한, 내달 개최되는 APEC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깊이를 더해갈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.

□ 정부는 '미래형 동맹'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[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]

- 지난 8.23일 한일 정상 간 회담은 서틀 외교를 조기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.
- 특히, 경제 분야에서 ①경제안보 소통 강화, ②수소·AI 등 미래산업 협력, ③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 등 양국 현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.
-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정상 차원 소통을 활성화하고, 저출산·고령화, 인구 감소, 수도권 집중, 농업, 방재 등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.
- 수소 공급망 연계, 암모니아 혼소발전 생태계 구축, AI 분야 글로벌 사우스 공동진출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.

[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]

- 다음으로, 공급망 안정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입니다.
- 먼저,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양국 간 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
- 둘째, 아세안 3위 경제 규모를 가진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(CEPA)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여 아세안 시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.

- 또한,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과거 FTA 발효('06) 시점 이후의 경제·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.

[마무리 및 참석부처 당부]

-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춘다는 “여세추이(與世推移)”의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우선, 조만간 발표되는 ‘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’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- 그리고 새 정부의 ‘신대외경제전략’을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.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